

'Upside Down', (초)현실에 발을 단단히 디디고 사는 법

류동현 | 미술 저널리스트
Yu Tonghyun | Art Journalist

'무언가 이상하다. 우리가 가끔, 아니 자주 보는 인물 초상 사진인데, 음, 무언가 이상하다. 사진에 찍힌 인물이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게 아니다. 이른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여'다. 소방관, 경찰, 약사, 은행원, 회사원, 유치원생 등 유니폼으로 구별되는, 사회 곳곳에서 각자 자신의 일에 종사하는 인간 군상이 찍혀 있는데(물론 유니폼으로 구별되지 않는 일반인도 포함해서), 얼굴의 표정은 서로서로 비슷하다. 똑같은 웃을 입혀놓으면 구분이 힘들 정도로.... 이지양의 작업 <Untitled : Upside Down Series>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 초상 사진임에도 무언가 이상하고 낯설다. 왜 그럴까?

인물 초상은 회화와 사진을 막론하고 동서양 예술의 역사에서 '가장 큰'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장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의 경우 동양의 초상화는 전신사조(傳神寫照)라 하여 인물의 외형 뿐만 아니라 그 인물의 인격과 정신까지 드러내려 했고, 서양 또한 로마 제국 시대 이집트 파이움 무덤을 뒤덮은 사실적인 초상화를 비롯해 오랜 시간동안 대상의 특징을 잡아내고 보여주는 데 온갖 기교를 화폭에 수놓았다. 사진이 발명된 후에 이 인물 초상 분야는 더욱 극적으로 변화한다. 보들레르가 비판하면서도 열광했던 초상 사진의 재현성, 벤야민이 설파한 아우라의 담론을 거쳐, 인물 초상 사진은 리처드 아베돈(Richard Avedon), 토마스 루프(Thomas Ruff), 신디 셔먼(Cindy Sherman) 등 수많은 현대 작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소재이자 도전의 과제로 다가왔다.

여기에 이지양의 인물 초상 사진이 추가된다. 그러나 그 과정과 형식에서 커다란(혹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바로 그가 보여주는 인물 초상 사진은 인물을 거꾸로 매달아 찍은 사진이다! 사진 속 인물은 중력의 영향과 매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인해 표정이 미묘하게 뒤틀려 있다. 그 결과 자연스럽지 못한, 낯선 표정의 인물 초상 사진이 등장하게 되었다. 흡사 리처드 아베돈, 토마스 루프의 작업과 보여지는 형식은 유사하지만, 이지양의 작업은 이 지점-인물을 거꾸로 매달면서(Upside Down)-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 초상 사진과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한다.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인물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작업 시리즈는 이른바 '중력 시리즈'로 불린다(작품의 제목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Untitled : Upside Down Series>로 한국어로 하면 <무제 : 거꾸로 시리즈>정도 되겠다).

지난 해 갤러리AG에서 연 개인전 <Stationary Nonstationary(정상 비정상)>과 관련해 박순영이 쓴 전시 서문을 보자. 박순영은 이 '중력 시리즈'에 대해 샘 테일러우드(Sam Taylor-Wood)의 작업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진작가인 샘 테일러우드의 <Self-Portrait Suspended>(2004)처럼 중력을 다루는 사진은 간간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녀가 자유로운 몸짓, 그리고 공간으로부터 오는 텅 빈 것의 쾌감을 성취하기 위해 중력을 선택했다면 이지양의 인물사진은 일그러진 표정으로 인해 전달되는 심리적인 압박과 버티기로 인한 고통, 불안을 드러내기 위해 중력을 선택했다..." 최근 주목받는 중국의 리 웨이의

작업도 샘 테일러우드의 작업과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지구의 중력을 비롯듯이 자유자재로 대기 속을 노니는 설정이 말이다. 즉 샘 테일러우드와 리 웨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실체를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절대적인 자유를 이야기한다면, 이지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실체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세계의 유한함을 이야기한다.

'Upside Down'을 통한 중력의 역습

여기에 개인적으로 주목한 것은 그가 작품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사실 중력을 잘 드러내고 자 작품을 설치한다면, 거꾸로 매단 인물을 그대로 머리가 아래로 향한 방식으로 보여주면 된다. 관객은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인물의 초상 사진을 보면서 표정의 변화와 자세에서 직관적으로 중력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 작품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보였던 전통적 방식의 인물 초상화로 재직조한다. 단순히 거꾸로 매단 인물을 촬영한 후(물론 옷이나 머리카락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드러내도록 요구는 했지만) '다시 돌려서 전시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Upside Down'의 또한번의 변주다. 이 방식은 작업을 드러내는 데 있어 매우 영리한 전략이다. 이 방식을 통해 수많은 인물들이 보여주는 미묘한 표정과 자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수많은 전통적인 초상 사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접한 관람객들은 그 미묘한 표정의 변화와 떨림에서 낯선 감각을 더욱 크게 일깨운다. 이른바 전통 초상 사진이 낯선, 언캐니(Uncanny)한 작품으로 변신하는 지점이다.

작가의 '거꾸로' 개념트는 다른 작품들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31 SdrawkcaB(31 스텍카B)>(2004), <Hold Me Tight(꼭 안아주세요)>(2009), <Untitled : Lullaby(무제: 자장가)>(2011) 등을 보자. 2004년에 작업한 <31 SdrawkcaB(31 스텍카B)>는 3분 17초짜리 비디오 작품으로 한 청년과 두 마리의 개가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얼핏 보면 자연스럽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무엇인가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이 느껴진다. 제목을 보자.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단어들을 뒤에서부터 본다면 작업의 정체가 쉽게 드러난다. '반대 방향으로'라는 의미의 'Backwards'를 거꾸로 써놓은 것이다. 실제로 이 작업은 3분 17초짜리 영상을 거꾸로 재생했다. 제목의 31 또한 13번 째 짝은 작품을 거꾸로 써놓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거꾸로' 개념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념적으로 발전한다. <Hold Me Tight(나를 꼭 안아주세요)>와 <Untitled : Lullaby(무제: 자장가)>는 형태가 주는 감각과 실제 감각의 대비, 제목이 주는 언어와 실제의 대비를 드러낸다. <Hold Me Tight>는 과거 여자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커다랗고 귀여운 곰인형 형태의 작품이다. 폭신한 털로 뒤덮인 느낌의 이 곰인형은 실제로는 시침핀들이 촘촘히 밖으로 향해있다. 제목처럼 꼭 안았다가는 큰일날 수 밖에 없다. 흔들의자 위에 걸쳐져 있는 따뜻한 느낌의 담요로 구성된 <Untitled : Lullaby>도 마찬가지다. 편안한 흔들의자에서 담요를 덮고 자장가를 부르고 싶지만, 담요는 털이 아닌 시침핀으로 덮여있다.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인형이 커가면서 폐기되는 과정 속에서 그 오브제가 가지고 있던 원래 용도에 대한 희미해지는 기억을 이러한 작업을 통해 환기시킨다. 이 작업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대비(혹은 '거꾸로' 개념)는 작가가 자라면서 느끼고 지냈던 세상에 대한 감각과 감정들의 스펙트럼이다. 여기에는 즐거움, 두려움, 익숙함, 낯설, 편안함, 불안함 등 갖가지 대비되는 감정들이 혼재해 있다. 이런 대비는 작가가 본 영화 중 한 장면들을 따서 만화경 이미지로 재가공한 <Kaleidoscope Series(만화경 시리즈)>(2011)에서도 엿볼 수 있다. 히치콕의 <새>에서 새가

공격하는 장면, 이누도 잇신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호랑이 장면 등 동물이 등장하는 장면은 영화 속에서는 두려움과 현실의 칙칙함을 드러내지만, 만화경 속에서는 화려하고 환상적이며 몽환적인 이미지로 변화하고 대비된다.

고정관념에 대한 반기, 거꾸로 보라!

'거꾸로' 컨셉트와 함께 이지양의 작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또 있다. 바로 '손'으로 대표되는 '수공적'인 작업 방식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Hold Me Tight>나 <Untitled : Lullaby>는 수많은 시침핀을 몇 년에 걸쳐 꽃아서 완성한 것이다. <Forget-Me-Not(물망초)>(2010)는 영국에 체류할 당시 사람들이 버린 봉제 인형들을 해체하고 다시 재가공한 것이다. 수많은, 약간은 엽기적인 형태로 재창조된 오브제는 작가의 수공적인 노력을 통해, 어렸을 때는 귀중하게 여겨지다가 잊혀지고 버려진 봉제 인형을 다시 기억하기 위한 매개체로 재탄생하게 된다. 작업을 향한 작가의 이러한 태도는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촉각적인 감각(표피적인 시각적 감각과는 다른)으로 좀더 진중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든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거꾸로' 컨셉트와 기억 속 오브제를 결합시킨 새로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Unfolded FIGURE>다. 종이접기를 통해 문자를 구성하는데, 여기서 작가는 종이를 접어 표현한 'FIGURE'라는 여섯 글자를 펼쳐 놓음으로써(완성된 글자를 펼쳐 놓는 과정에서 '거꾸로' 컨셉트가 개입된다) 관람자로 하여금 눈을 통해 투과된 익숙함에 반기를 들도록 한다. 손으로 접는 종이접기는 작가의 촉각적(수공적) 감각을 상기시킨다. 작가는 이러한 시각적 익숙함에 반기를 들지만, 방식은 기존의 법칙을 따른다. 이미 알려진 '종이접기 법칙'을 이용해 글자들을 접고 펼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칙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가는 법칙을 이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을 확인한다고 밝힌다. 즉 법칙의 이용은 앞에서 언급한 수공적 방식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수공적 방식의 작업을 통해 세상을 안정적으로 느끼는데, 법칙의 이용 또한 그러한 안정감에 대한 방증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래 10여 년간 이 세상 속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20세기 초 지식인에게 두 번의 세계대전 이 세계에 대한 회의(懷疑),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면, 21세기 초는 멀게는 9·11 테러나 근래의 3·11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현실이 더 초현실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이 세상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upside down), 혹은 되돌려(backwards) 보는 작가의 작업은 우리에게 단순한 시각적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감각을 낮설게 일깨우고 고민하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이른바 '한땀한땀' 수공적으로 제작한 작업, '종이접기 법칙'으로 대변되는 법칙의 이용은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인 이 세상의 땅 위에 발을 든든히 디디는 법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은 아닐까? 유약하고 유한하기에 더욱 회의하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강해질 수 있다고, 자연법칙과 중력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 숨쉬고 땅에 디디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이다.